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33:14-16
2026년 4월 12일 오전 11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 주역 도우소서 >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사 33:5). 그 높은 곳은 거룩과 영광의 자리이며,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도 그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16 절). 5 절의 높은 곳은 히브리어로 **מרם** (마롬, marom)이고, 16 절의 높은 곳은 마롬의 복수형인 **מרומים** (메로뫼, meromim)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강조, 풍성함, 위엄 등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이것을 ‘강조적 복수’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거하게 되는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높은 곳’과 같은 단어이지만, 복수형을 사용하여 더 풍성하고 완전하며 안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1.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사람

문제는 누가 그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가입니다. 죄인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거할 수 없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14 절).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삼키는 불”과 “영영히 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고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시 50:3). 그리고 반역하는 죄인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백오십 명을 불살랐더라”(민 16:35).

여러분, 왜 죄인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 15 절은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15 절).

2.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첫째,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현대 그 평화와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정의와 공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사 32:17). 의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에서 기쁨이 옵니다.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잠 12:20).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의이고, 죄와 불의를 버리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정직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를 미워하십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수 8:17).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2). 이것은 십계명 중 제 3 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범하는 대죄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오직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 장에 나오는 미가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정직히 말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전쟁에 대해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이깁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는 미가야에게 다른 예언자들처럼 왕의 승리를 예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불리한 진실을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왕상 22:14). 그리고 그 정직의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정직은 때로 손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삶은 이미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삶입니다.

셋째,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토색은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사기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라면, 토색은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군인들과 세리들이 토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세리와 군인들에게 토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눅 3:13-14).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넷째,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신 10:17). 또한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출 23:8).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 27:25). 반면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삽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잠 15:27).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삽니다.

다섯째,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여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이 찬송 중에 <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라는 곡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 주일학교 운동 속에서 널리 퍼진 찬양으로 어린이들에게 경건한 삶과 거룩한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50년~70년대 사이에 이 곡이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로 변안되어 한국 교회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시절에 불러 보셨을 것입니다. 1절은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2절은 네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3절은 네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4절은 네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5절은 네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입니다. 현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것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막아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살인자의 음모, 살인하자는 소리입니다. 살다 보면 악한 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대해 잠언 1 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었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 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잠 1:11-14).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잠 1:19). 허나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막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하고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악입니다. 여기서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악을 ‘허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시 119:37). 허탄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잠 23:5). 물론 재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허나 우리가 재물을 주목하여 신으로 섬길 때, 재물은 허탄한 신, 맘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을 하는 우상이 됩니다. 맘몬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마 19:23).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잠 11:28). 반면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재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눅 6:20).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맘몬 나라에 사는 부자보다 낫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7:1).

물론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재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신 8:18 상반절). 그리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딤후 6:18). 부한 자들이 재물로써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 없이 베풀며, 즐겨 나누어 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후 6:19). 나아가 눈을 감아 악한 재물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게 됩니다.

3.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의 복

오늘 본문 15 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16 절에 나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사 33:16). 견고한 보호와 끊이지 않는 공급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필요한 양식이 공급되며 생명의 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만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우리가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말하며 탐욕을 버리고 거룩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는 삶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